

**바이든 랠리
코로나 백신 개발**

코스피 29개월來 최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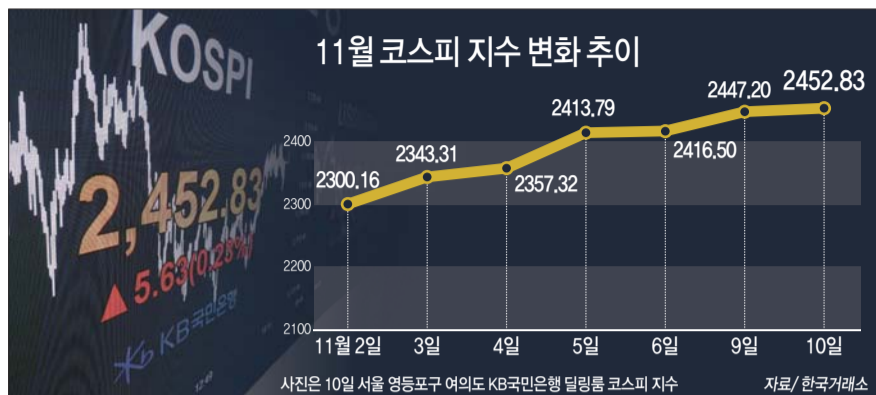
코스피 지수 7거래일 연속 상승 대선 불확실성 해소, 백신개발 등 투자심리 개선에 위험자산 선호 증시 오름세 지속... 2600 전망도

미국 대선 불확실성 완화와 화이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 관련 소식이 글로벌 증시를 크게 밀어 올렸다. 전문가들은 향후 증시도 오름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10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5.63포인트(0.23%) 오른 2452.83에 장을 마감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혼조세를 보이다 7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지난 9일에는 2459.15로 지난 2018년 6월 12일(2468.83) 이후 29개월 만에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미 대선 승리 선언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이라는 긍정적인 소식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달러 약세(원화 강세) 전망이 이어지고,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통화 등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졌다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 9일(현지 시간)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텍이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90% 이상이라는 3상 중간결과가 발표됐다. 백신 관련 소식은 미국 증시 상승 랠리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해 다우 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일 대비 각각 834.57포인트, 41.06포인트 상승한 19157.96, 550.50에 장을 마감했다. 다우 지수의 경우 종가 기준으로 지난 6월 5일 이후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81.45포인트 하락한 181.45에 장을 마감했다. 투자자들이 코로나 수혜주로 쏠리며 반사이익을 얻던 언택트(Untact, 비대면) 관련주들을 매도하고, 여행·자동차·항공 등의 종목을 매수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0일 한국 증시도 전날 미 증시와 마찬가지로 종목별로 희비 교차가 이뤄졌다. 대표적인 언택트 업종인 네이버(-5.03%), 카카오(-4.17%) 등이 하락했지만 코로나19 관련 피해가 컸던 업종 위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대한항공(11.24%), 제주항공(10.74%), 진에어(10.99%), 호텔신라(5.81%), 하나투어(9.29%), 에스오일(14.68%) 등이 코로나19 백신 개발 호재로 상승 마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키 맞추기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시장의 트렌드가 완전히 돌아섰다고 말하기엔 시기상조”라며 “앞으로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얘기가 계속 나오겠지만, 백신과 치료제가 대중화되는 시기는 빨라야 내년 하반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승창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코로나19 백신이 대중적으로 유통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지나치게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며

“언택트 관련주가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주목받는 경향이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트렌드 변화의 연속선상 위에 존재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언택트와 콘택트 관련 주가가 차이가 났으니 키 맞추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향후 증시는 오름세를 보여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센터장은 “코스피 고점을 2600으로 본다. 단, 연말까지는 코로나19 재확산, 일부 국가들의 경제 봉쇄 영향을 고려해 박스권 흐름의 변화가 이어질 것”이라며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주목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화학, 철강, 전통소재 업체, 금융 등 실적 전망이 상향되는 업종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센터장은 “미국 대선과 관련해 경기부양책이 이어지는 등 주식시장이 나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며 “물론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지난 3월 락다운에 대한 학습효과로 지금 유럽 일부 국가가 락다운 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연말 배당 관련 작은 이슈들이 있지만 상승 흐름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4차 산업혁명, ESG 등 긴 트렌드를 보고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韓, 10월 넷플릭스 결제금액 514억

유료 결제자 326만명 ‘역대 최고’

넷플릭스가 지난달 역대 최고 결제액과 유료 결제자 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앱·리테일 분석서비스 와이즈앱·와이즈리테일이 지난 10월 한국인의 ‘넷플릭스’ 결제금액, 유료 결제자 추정치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역대 최고 결제 금액인 514억원, 결제자는 326만명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국내 만 20세 이상 신용카드, 체크카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다.

지난달 기준, 국내 넷플릭스 유료 결제자는 1인당 월평균 1만4205원을 결제했다. 이 중 20대가 36%, 30대가 25%, 40대가 20%, 50대 이상이 19%를 차지했다.



와이즈앱 측은 “국내에서 넷플릭스 유료 결제는 카드 결제 외에도 통신사를 통해 요금을 합산 지불하거나 아이튠즈(iTunes) 등에서 결제할 수도 있다”며 “해당 가입자는 본 조사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클라우드 고객 최대 관심사는 ‘요금’

클라우드라이프, 상담 자연어 분석 파일공유 > 권한관리 > 업로드 순

클라우드 고객의 최대 관심사는 요금, 파일공유, 권한관리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투글로벌센터 멤버사인 클라우드이크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고객의 문의 중 요금 관련이 16.2%로 가장 높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클라우드 파일 공유 서비스 기업인 클라우드이크가 채팅 상담을 통해 2019년 10월부터 약 1년간 진행한 800여건의 채팅 상담 내용을 자연어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다. 고객문의는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난 4월과 5월에 가장 많았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두번째로 파일공유가 12.4%로 높았고 권한관리 7.2%, 업로드 7.2%, 용량 6.8% 순으로

클라우드 사용 문의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몇 가지 주제가 묶여 함께 나타난 결과가 눈에 띄었다.

예를 들면 ‘인쇄’ 문의는 반드시 ‘업로드’, ‘다운로드’ 주제와 함께 등장했다. “인쇄 권한과 다운로드 권한을 별도로 부여할 수 있나요?”와 같은 질문이었다.

클라우드이크는 특허 받은 동기화 기술을 적용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기업이 부담 없이 파일을 공유하고 동기화할 수 있도록 구독형 서비스(SaaS)로 제공한다. 현재 넥슨 코리아, CJ, HK이노엔, 테라펀딩 등에서 사내(온프레미스)에 기업용 클라우드이크를 구축해 사용 중이며 영상, 제조, 건설 분야의 400여개 중소기업들도 기업용 클라우드이크를 구독 형태로 유료로 사용 중이다.

/채윤정 AI전문기자

“올 세계경제 마이너스 5% 성장 예상”

**‘2021 산업전망 컨퍼런스’ 개막
셱커 “韓 ICT, 700조 성장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올해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코로나19로 다른 나라들의 경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겠지만 중국은 플러스 성장이 예상돼 유일하게 기존 2.2% 성장을 유지해 수정된 올해 및 내년 경제 전망치를 12일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블룸버그가 선정한 세계 1위 미래학자인 퓨처리스트 인스티튜트의 제이슨 셱커 회장은 한국의 ICT(정보통신 기술) 시장이 올해 500조원으로 시작해 2025년 650조~7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글로벌 ICT 시장의 약 10%이다.

제이슨 셱커 회장과 김홍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11개 ICT 기관이 주관해 온라인으로 개최된 ‘2021 ICT 산업전망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전망치를 제시했다. 이 행사는 11일까지 이



퓨처리스트 인스티튜트의 제이슨 셱커 회장이 10일 온라인으로 개막된 ‘2021 ICT 산업전망컨퍼런스’에서 참가자들의 질문에 화상으로 답변을 하고 있다.

틀 간 열린다.

셱커 회장은 “퓨처리스트 인스티튜트의 ICT 전망에서 전통기술은 올해 약 4조~4조5000억 달러에서 2025년에는 약 6조 달러 규모로 성장해 50% 증가할 것”이라며 “이에 비해 사물인터넷(IoT), 로보틱스, 증강(AR)·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이 올해 약 1조 달러 정도지만 2025년 2조5000억~3조 달러로 성장해 150%로 훨씬 큰 폭

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특히 “신기술 중 IoT(사물인터넷) 기술이 가장 큰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라며 “향후 10년을 내다볼 때는 양자컴퓨팅이 특정 종류의 계산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규모 데이터의 최대 가치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돼 절대적으로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셱커 회장은 또 지난해 전 세계 ICT 산업에서 통신이 27%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하드웨어(23%), 서비스(22%), 신기술(16%), 소프트웨어(12%) 순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 중국, 유로존의 제조업지수를 합친 지표가 150을 넘으면 제조업이 확장됨을 의미하는 데 최근 수치가 150을 웃돌아 제조업이 코로나19에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 중국, 유로존 등은 제조업은 GDP(국내총생산)의 10~13%를 차지하지만 중국과 한국은 20~25%를 차지해 제조업이 좋아지면 한국과 중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제도 본격 시행

산업부, 지역주도 발전사업 활성화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지자체 주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집적화단지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정을 완료하고 1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적화단지 고시는 10월 1일 시행된 신재생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 조치로, 입지 요건, 민관협의회 운영 등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았다.

집적화단지는 40MW 이상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지역으로, 지자체가 입지발굴과 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 산업부에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면 평가 후 신재생에너지 지정책임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된다.

지자체는 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역 주민·어민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민관협의회는 입지 후보 지역

과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연계 되는 공급인증서(REC) 판매수익 활용방안 등 지역 상생과 주민 이익 공유 방안을 협의하게 된다. 산업부는 집적화단지를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하고 REC 추가 가치(최대 0.1)를 지원해 신재생발전사업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 제정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활성화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 개발을 도모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지역사회 발전수익 공유도 보다 본격화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풍황계측기 유효지역을 일부 개정된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효율적 풍력단지 배치가 보다 용이해지고, 계측기를 발전단지 최외곽에 배치할 수 있게 돼 단지 개발 후에도 풍황계측 등에 기존 계측기를 지속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